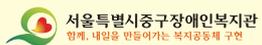


드림블라썸아카데미 2020 종합전시 DREAM BLOS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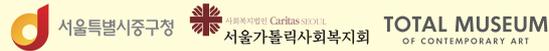
주최·주관



지원



협력



DREAM BLOSSOM



드림블라썸아카데미 2020 종합전시

박지윤

송우석

송지수

유채린

장지환

정문성

정민우

정효경

최병철

홍영훈

✿ 전시서문

분명 존재하였건만 그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꿈이 찬란하게 꽃피워지는 놀라운 감동의 시간을 우리 모두는
드림블라썸아카데미(Dream Blossom Academy: DBA)를 통해 지난
3년간(2017년 6월~2020년 6월) 행복하게 누려왔습니다.

이제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 놓인 이 작은 책자를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와 함께 꿈을 꾸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함께 꿈을 실현해 내고,
그리고 아낌없이 그 꿈을 함께 나눠주시는 발달장애인 작가분들,
부모님들, 토탈미술관 관련 작가분들, 바틱 관련 인도네시아분들, 자문
교수이신 송실사이버대의 정무성 총장님, 아산복지재단, 이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때론 막다른 길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우리의 꿈을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 우리 복지관의
DBA 사업단과 모든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 꿈을 꿀 수 있으려면 상상을 넘어선
엄청난 신뢰가 요구됩니다.

그 꿈을 현실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뢰와 인내, 용기의 가치를 DBA를 시작하고, 진행하며,
마무리하는 전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의 DBA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미미한 시작은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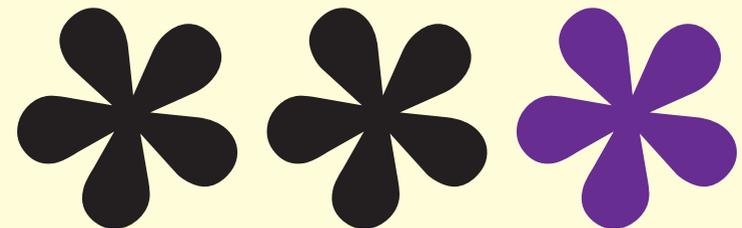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낸 꿈 위에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니다.
그것은 더욱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자신들의 잠재된 다양한 능력들을
활짝 꽃피워서 세상 곳곳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그런 꿈 말입니다.

우리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구와 학문에 근거한 꿈을 꾸는 사람들(Academy Based
Dreamers: ABD)로서, 많은 분이 함께 일궈 온 DBA(Dream Blossom
Academy)가 앞으로도 사람들의 꿈을 꽃피워내는 장(場)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장 정진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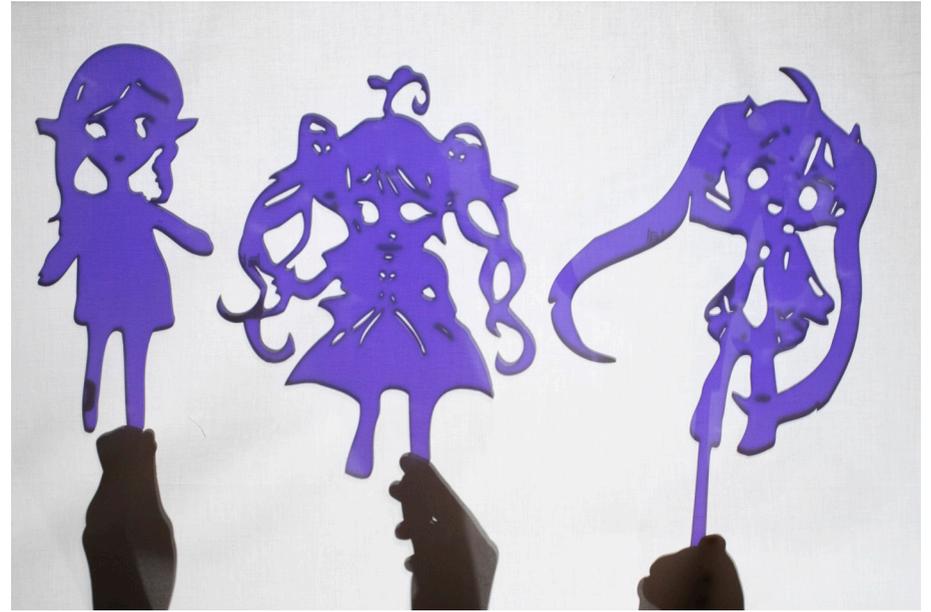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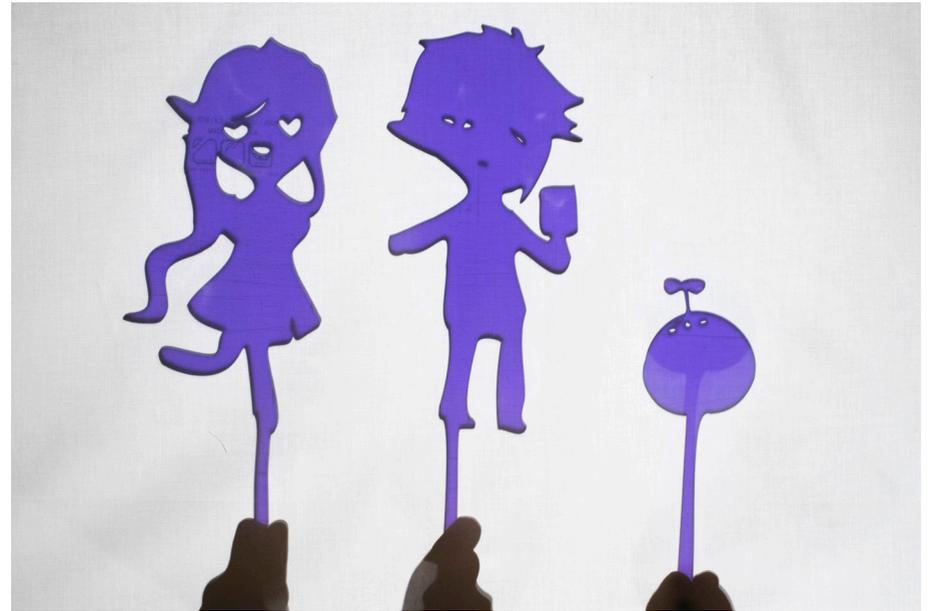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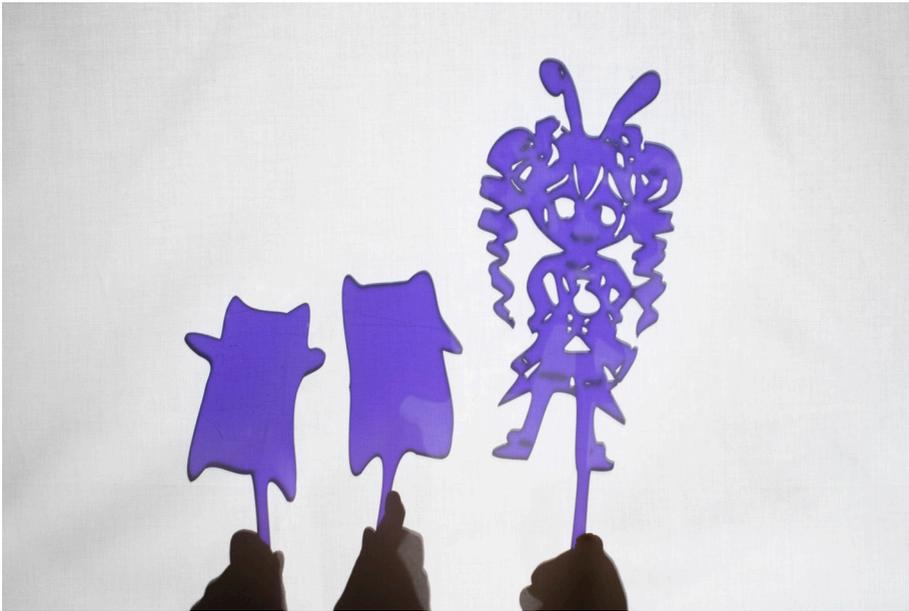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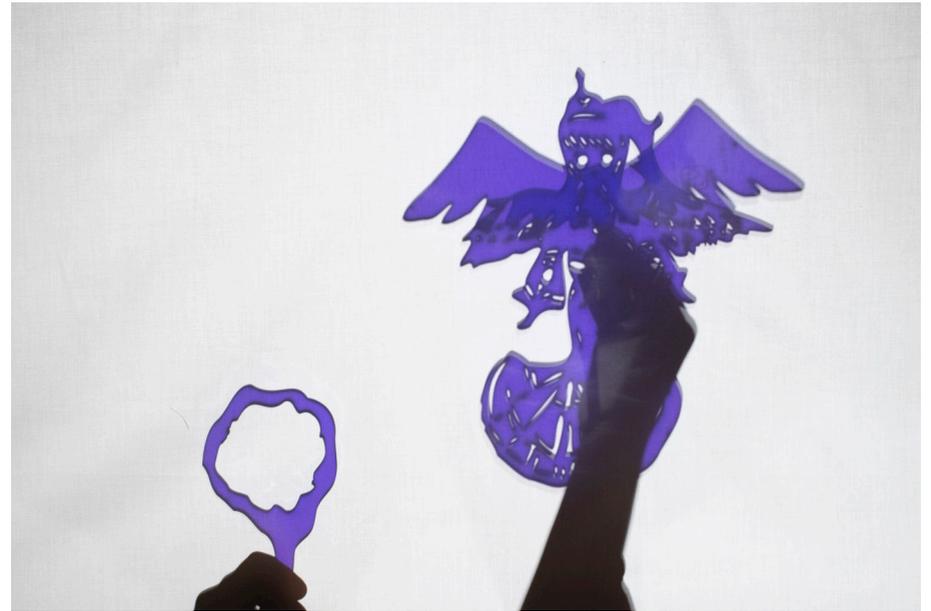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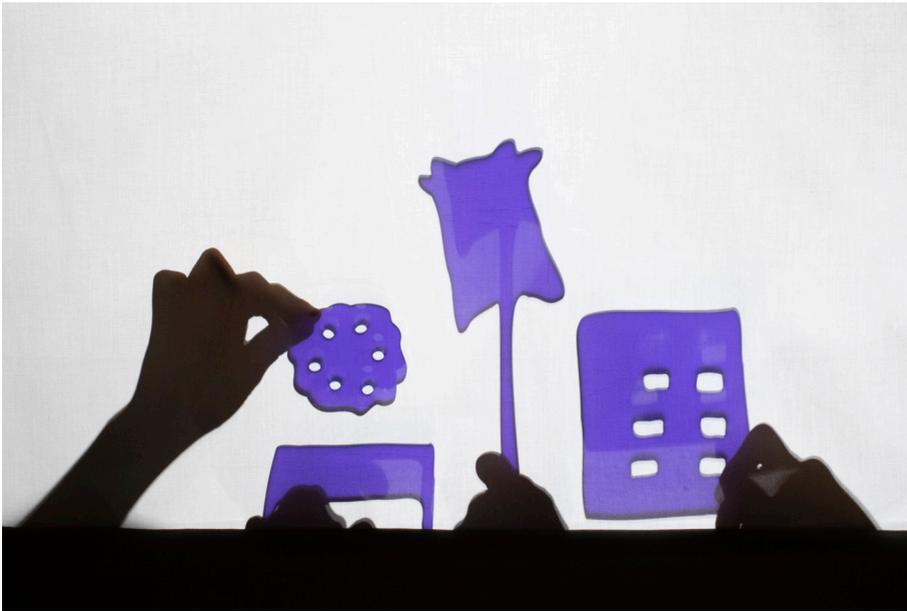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정효경, 불타는쿠키, 그림자놀이, 2020

* 정효경 작가 노트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마치며....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처음에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까?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따라 할까? 등등 항상 어린애 같던 아이가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전시회를 통해서 나의 딸이 이렇게도 잘할 수 있는데, 아프다는 생각에 장애우라는 생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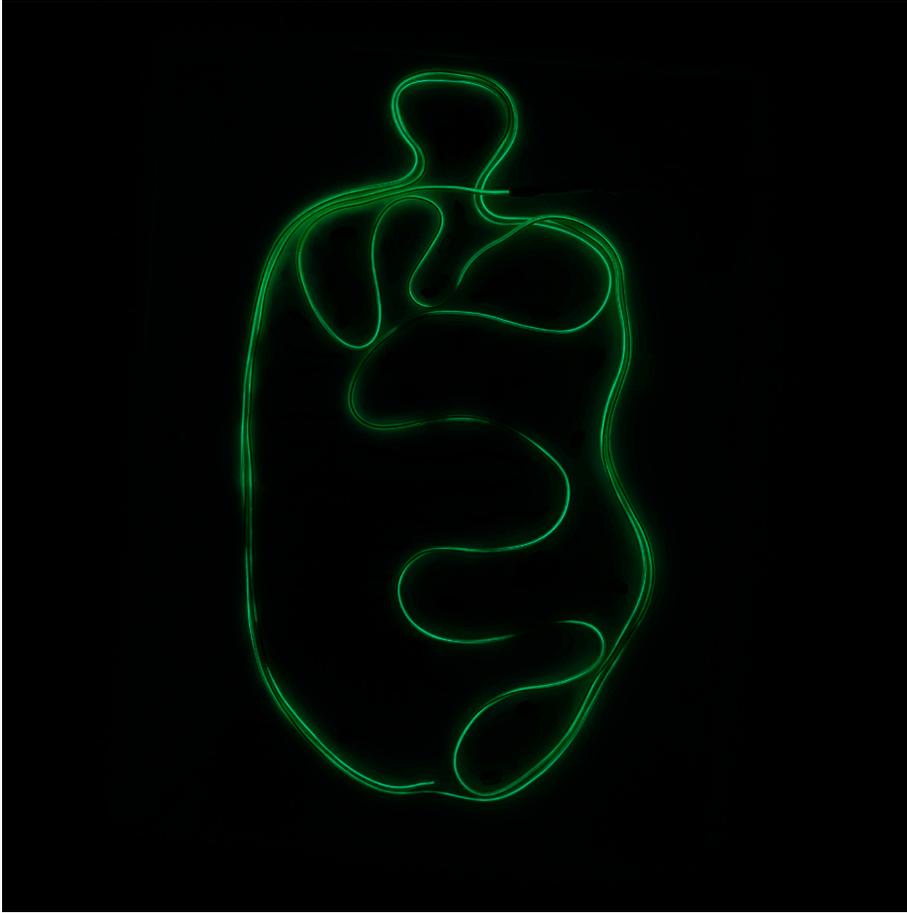
너무나 간섭과 걱정을 하면 온 실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혼자서도 너무나 잘해 나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그 3년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저 혼자 스스로 하려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아이로, 등등 많이 변해있는 아이. 그동안 선생님이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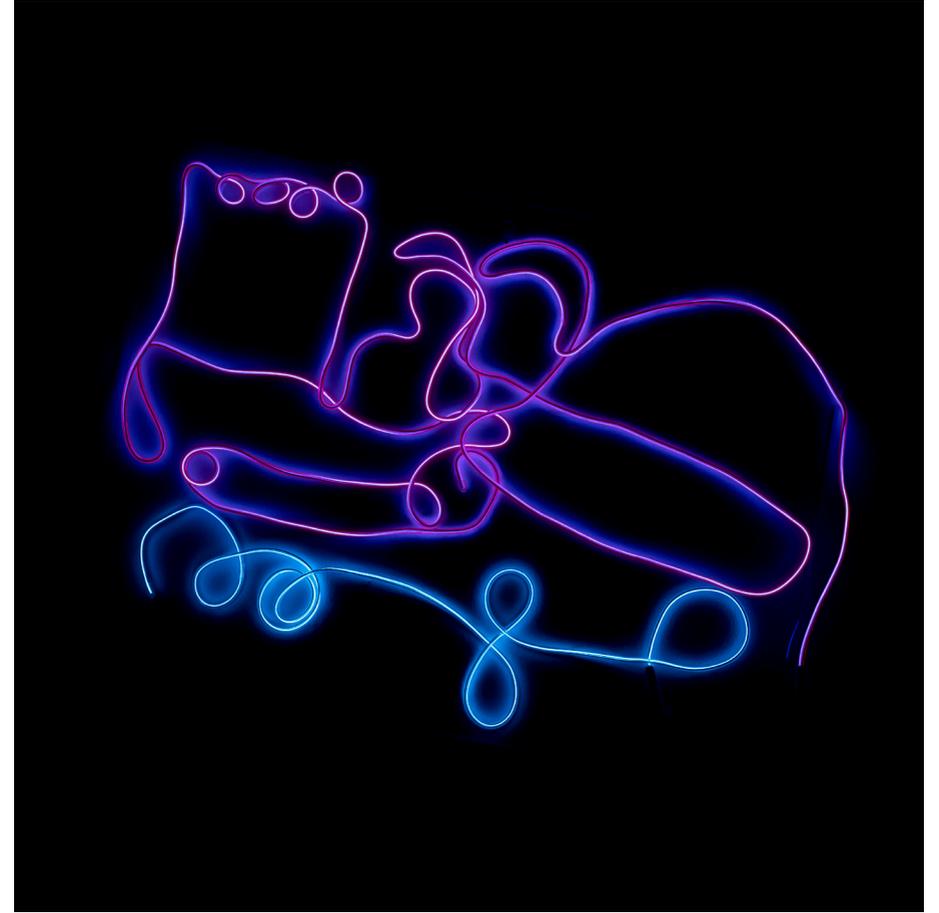
지금은 어디든지 혼자서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잘하는 나의 딸을 보면서 가끔은 마음이 몽클하다 이제는 이곳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 같이는 가지 못하겠지만 천천히 천천히, 남들보다 한 두 걸음 뒤에서 나아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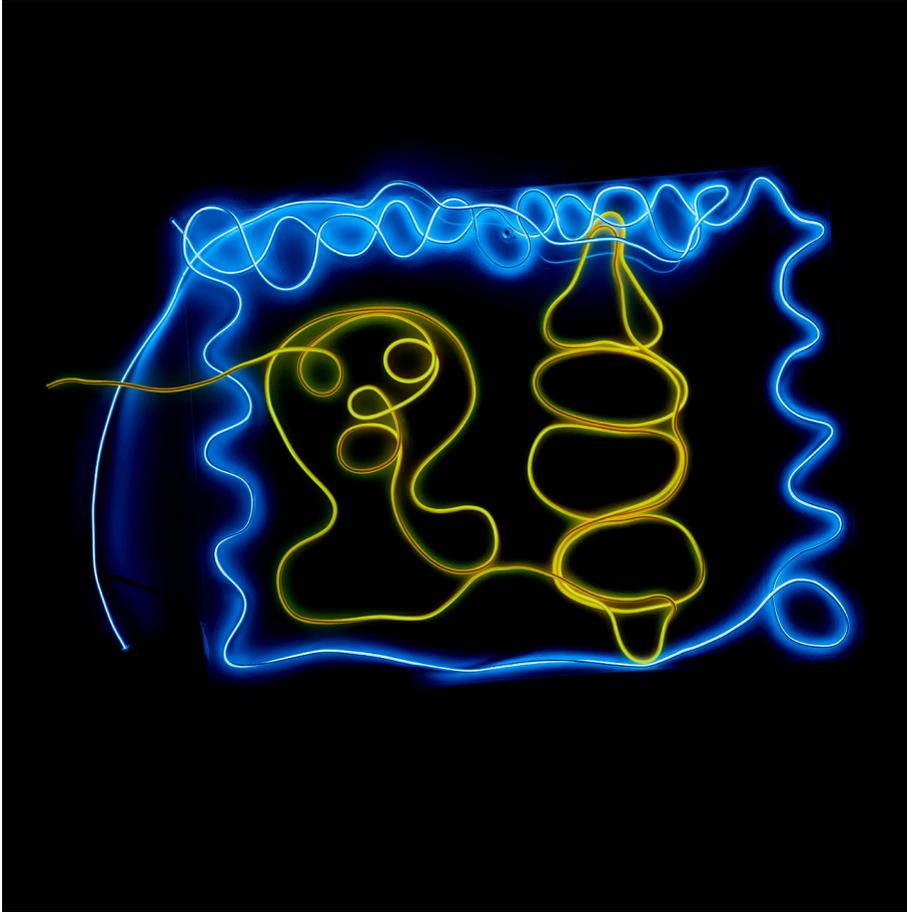
그동안 너무도 수고하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박지윤, 네온사인, 45X30cm, 네온사인아트, 2020



송지수, 네온사인, 45X30cm, 네온사인아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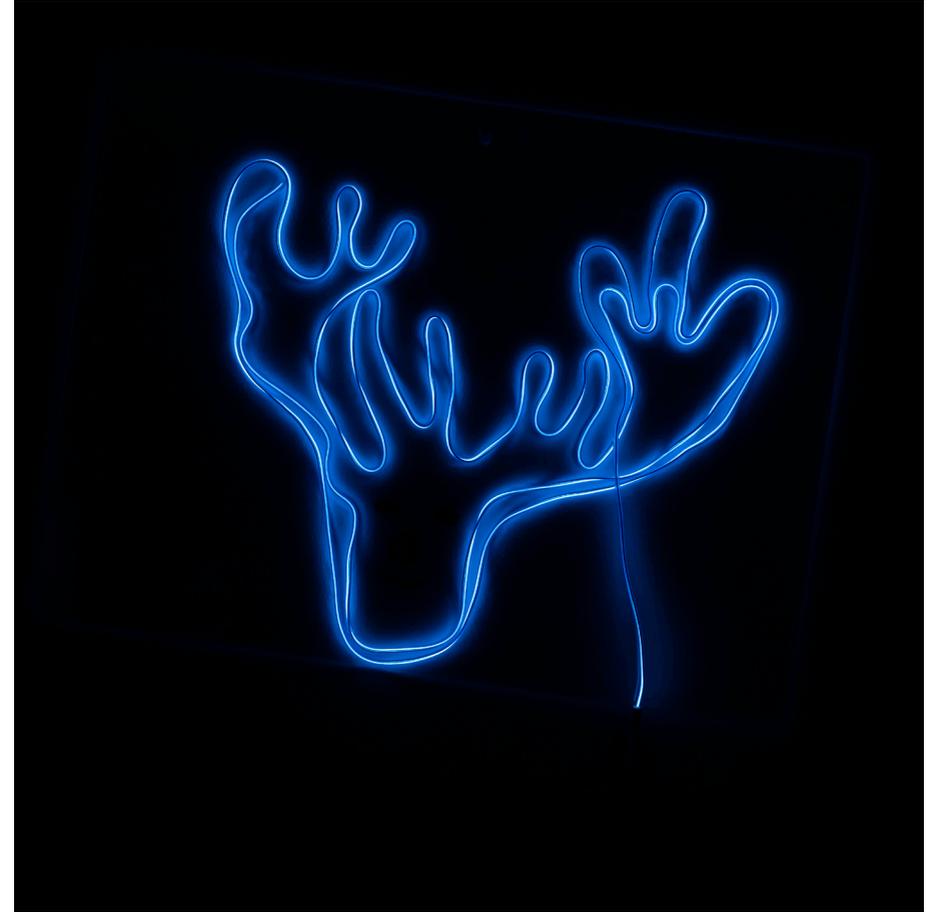
장지환, 네온사인, 45X30cm, 네온사인아트, 2020



정문성, 네온사인, 45X30cm, 네온사인아트, 2020



정민우, 네온사인, 45X30cm, 네온사인아트, 2020



홍영훈, 네온사인, 45X30cm, 네온사인아트, 2020



송우석, 네온사인, 45X30cm, 네온사인아트, 2020

✿ 송우석 작가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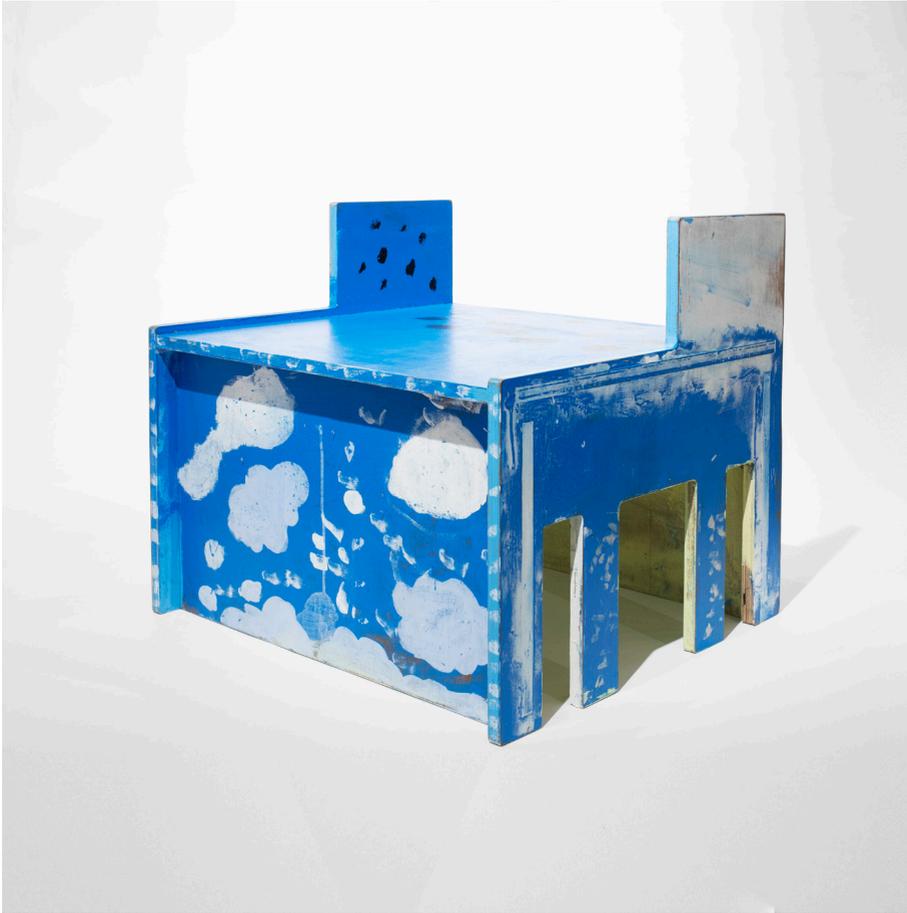
삐뚤어진 선 하나에도 예술이라 칭찬하며 격려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지도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재료들로 찢고,
붙이고, 칠하며 물들이기도 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각자 나름의 작품을 완성하며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던 시간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모·네모·동그라미조차 자신 있게 긋지 못했던
아들이 삶의 원동력인 자신감과 인내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설피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대로의 장점을 살려서 노력한 흔적들이
설렘의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작가라는 영광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값진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아산재단 관계자분들과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박지윤, 의자, 53X43X72cm, 목공예, 2020



송우석, 의자, 53X45X88cm, 목공예, 2020



유채린, 의자, 53X50X50cm, 목공예, 2020



정문성, 의자, 32X16X56cm, 목공예, 2020



정민우, 의자, 53X38X59cm, 목공예, 2020



정효경, 의자, 53X40X51cm, 목공예, 2020



최병철, 의자, 65X33X32cm, 목공예, 2020



홍영훈, 의자, 50X39X33cm, 목공예, 2020



송지수, 의자, 53X40X62cm, 목공예, 2020

* 송지수 작가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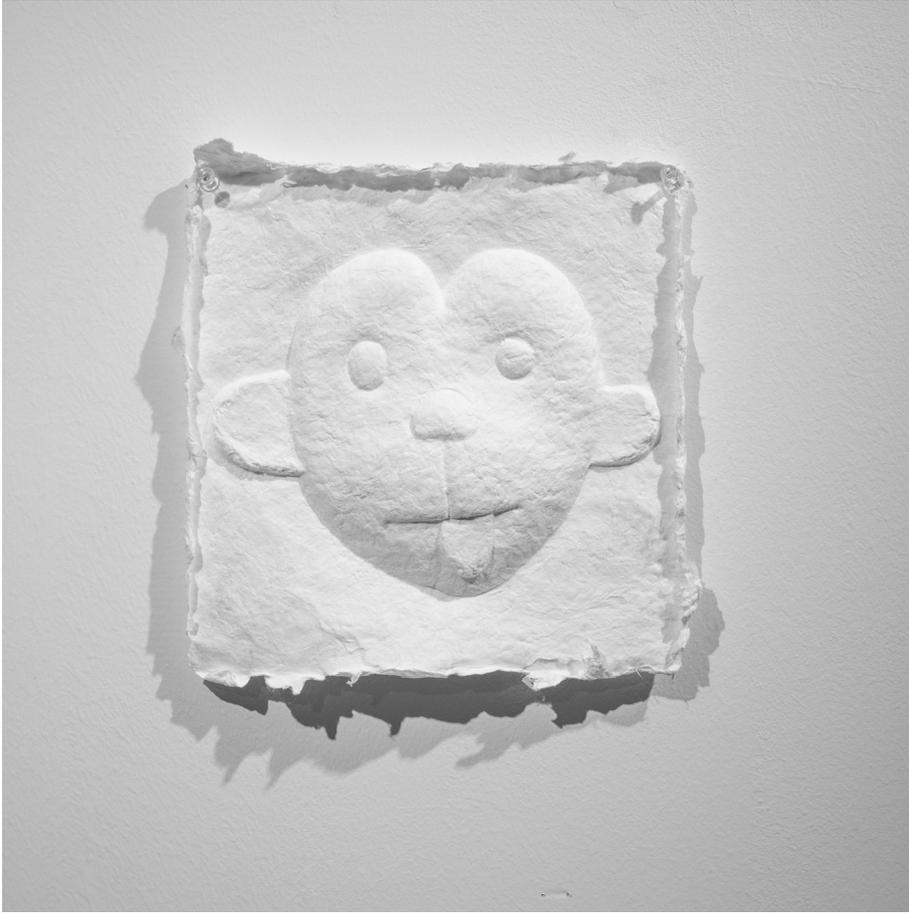
지수가 미술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존감과 자신감, 당당함도 높아졌습니다.

미술 선생님께서 지수가 미술적 감각이 있고 그림에 맞게 색상도 잘 골라 쓴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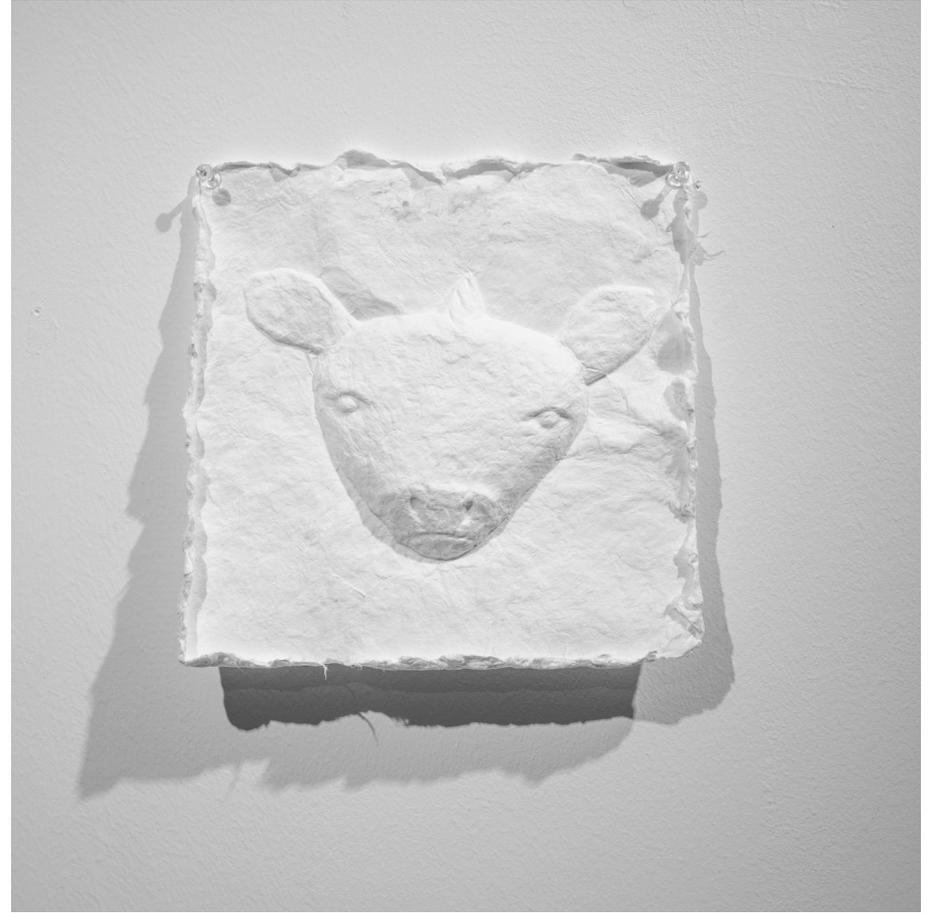
밝게 그림을 그리는 지수의 작품을 보면 지수의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 희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발전해 가는 지수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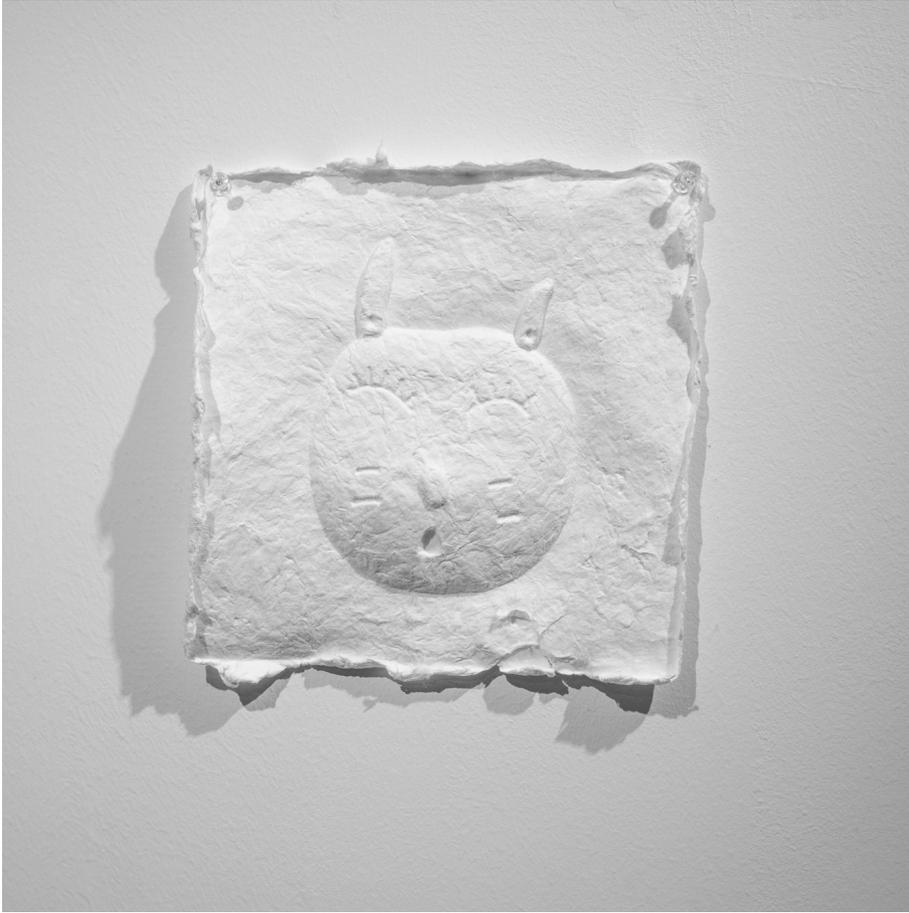
지원해 주시는 아산재단과 미술 관련 선생님들, 작업반 선생님들, 관장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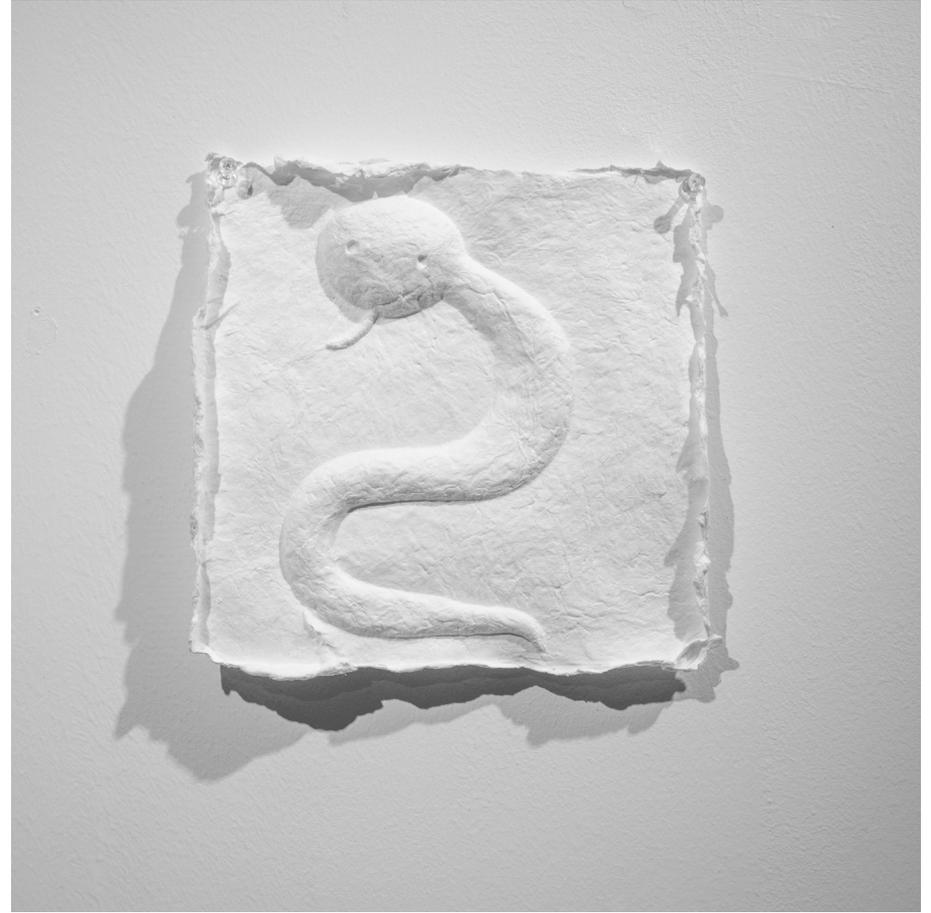
송우석, 원숭이,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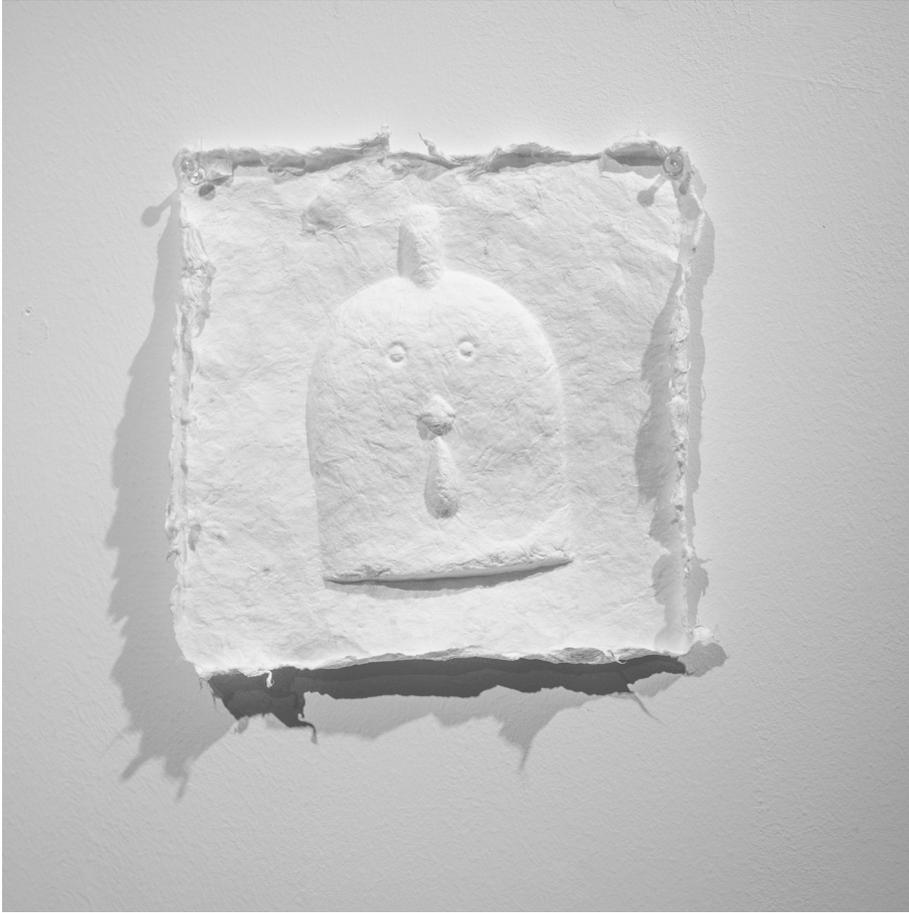
송지수, 소,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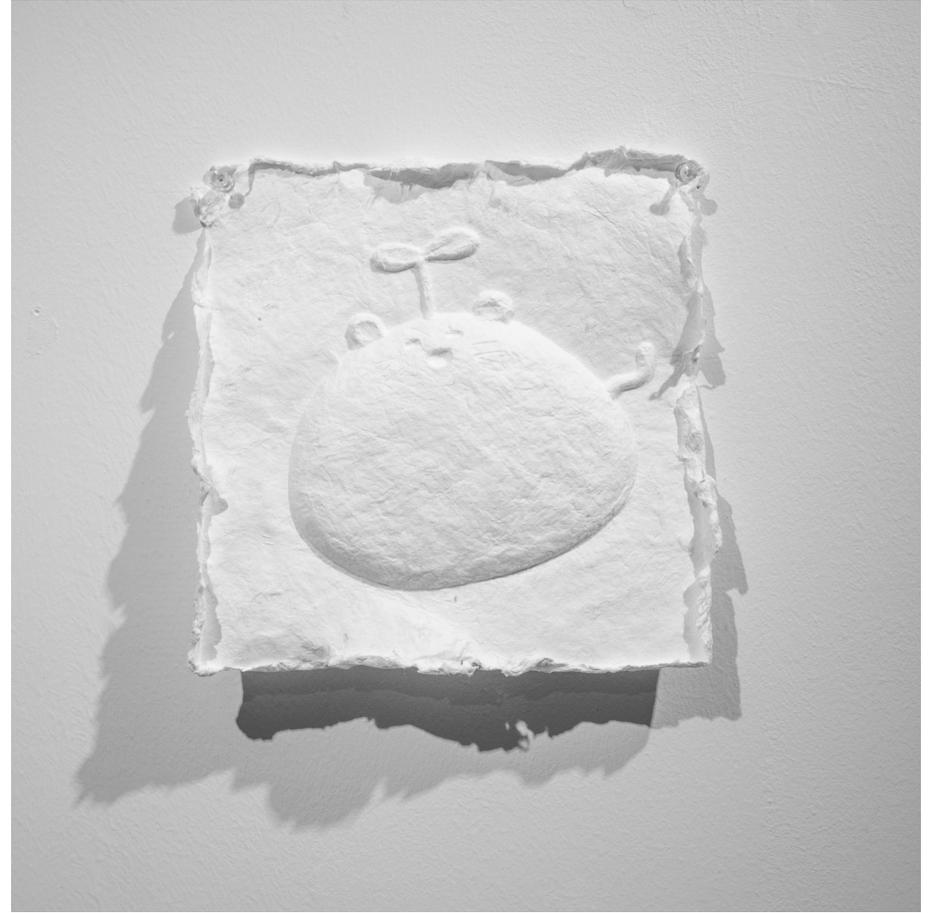
유채린, 토끼,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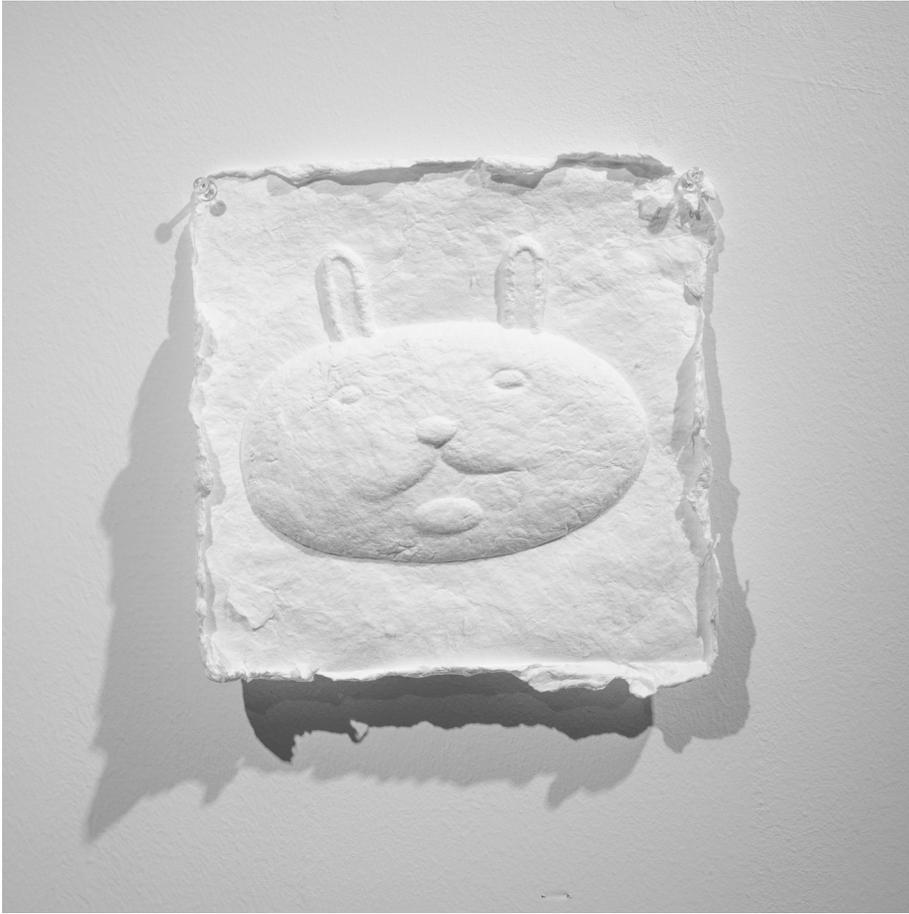
정문성, 뱀,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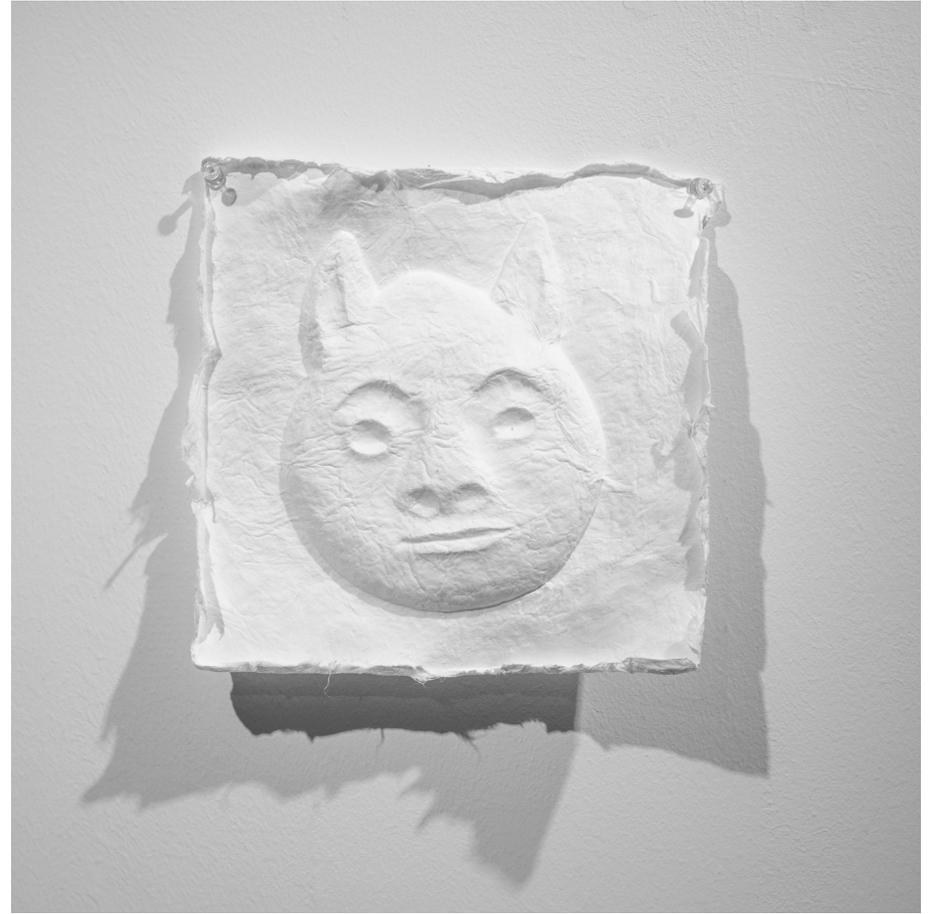
정민우, 닭,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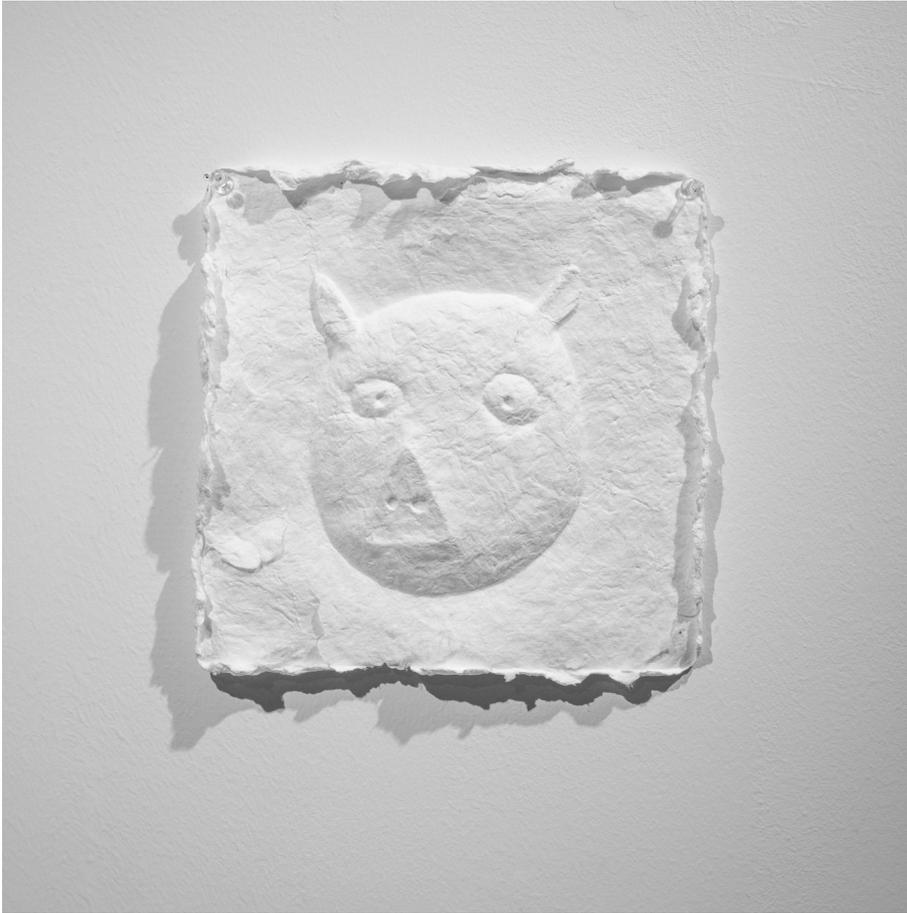
정효경, 참쌀떡,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최병철, 토끼,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홍영훈, 돼지,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장지환, 돼지, 20X20cm, 석고에 한지죽, 2020

✿ 장지환 작가 노트

안녕하세요 22살 장지환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고 항상 성실하여 정리정돈, 설거지, 청소 등을 자주 하고 가족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한번 학습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을 때 행복합니다.

살이 찢까 봐 매일 부모님과 함께 만 보를 걸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실내에서도 실내자전거 타기를 매일 합니다.

취미활동은 운동하면서 동생이 추천해주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종종 제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찾아 듣기도 합니다.

호기심과 관심이 많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하거나 외식할 때 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외적인 활동도 좋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고 전공 반 다닐 때는 학교 카페에서 오전에 바리스타로 근무했습니다.

미술을 시작한 지는 7년 정도이고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송지수, 유리돔, 15X25cm, 혼합매체, 2020



송지수,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송지수,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장지환,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장지환,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정문성, 유리돔, 15X25cm, 혼합매체, 2020



정문성,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정문성,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정문성,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정효경, 유리돔, 15X25cm, 혼합매체, 2020



정효경, 유리돔, 15X25cm, 혼합매체, 2020



정효경,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정효경,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최병철,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최병철,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최병철,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최병철,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홍영훈, 유리돔, 15X25cm, 혼합매체, 2020



홍영훈,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홍영훈,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정민우,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정민우, 유리돔, 9.5X11.5cm, 혼합매체, 2020



정민우, 유리돔, 15X25cm, 혼합매체, 2020

✿ 정민우 작가 노트

정민우 작가는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마음만큼은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순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고달픔과 시련은 실감하지 못하며 그저 순간순간 만족해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맘속에 있는 그대로를 표출하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의 한 방법이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의 그림 작업에 열중하며 흐뭇해합니다. 작가의 그림 속에는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주로 동물들의 이미지, 단순하지만 사물의 특징이 잘 담겨있습니다. 그다지 욕심내지 않고 기교는 없지만 달리 느낀 이미지를 자신만의 상상으로 담백하게 그려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문을 그림으로 열었습니다. 어려운 대상이 아닌 보는 이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친근감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림 속으로 가는 길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움의 손길도 많았습니다. 원활하게 대화는 어렵지만, 손이 대신 소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느낌, 몸짓을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사 깊이, 돌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기쁨을 함께하길 원하고 주변의 관심을 바라며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스스로 나올 준비가 되어있는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사랑해주길,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이를 사랑하는 방법도 이젠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좀더 참고, 인내하고,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비록 때로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유 있는 생각도, 기다림의 순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함은 아니지만, 보람과 성취감이 정민우 작가의 극복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즐겁고 그다음 하루가 행복합니다. 갑갑한 미래가 아닌 환한 미래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웃습니다. 또 그림을 그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가요!



송우석, CAR 01, 30X45cm, 혼합매체, 2019



송우석, CAR 02, 30X45cm, 혼합매체, 2019



송지수, 성 I, 35x35cm, 종이판넬에 색연필, 오일파스텔, 2019



송지수, 성 II, 35x35cm, 종이판넬에 색연필, 2019



송지수, 화병 I, 35x35cm, 종이판넬에 색연필, 2019



송지수, 화병 II, 35x35cm, 종이판넬에 색연필, 2020



정문성, 耳目口鼻.01, Xcm, 혼합매체, 2020



정문성, 耳目口鼻.02, Xcm, 혼합매체, 2020



정문성, 耳目口鼻.03, Xcm, 혼합매체, 2020



정문성, 耳目口鼻.04, Xcm, 혼합매체, 2019



정문성, 耳目口鼻.05, Xcm, 혼합매체, 2019

* 정문성 작가 노트

Dream Blossom Academy (DBA)의 마술

아직도 문성이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주어지면 대체로 도화지 반쪽에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을 작은 네모난 창문으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칠한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주의,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웠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소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라고 색칠 놀이와 종이 자르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만 아직도 선 밖으로 색이 빠져 나오고 잘린 면은 매끄럽지 못하다.

이번 DBA 2기에서 무슨 작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선으로 표현도 잘 안 되고 집중하는 시간도 짧운데 어떤 작업 활동을 하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었지만, 화가 선생님들은 즉집게 도사처럼 문성이에겐 적합한 미술 활동들을 찾아내셨다. 그중 하나가 (포토)콜라주이다.

< 사진 찍기(친구들의 耳目口鼻) → 인화(선생님) → 사진 고르기 → 오리기 → 배치 → 붙이기 >

이 작업 활동은 문성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인화하여 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욱 높여 주었고 활동하는 동안 표정도 매우 즐거워 보였다. 그리고 한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그만큼 크게 느끼는 것 같았다. “엄마, 이거 누구 귀인지 아세요?” “글쎄.”

점이나 선으로 모양(면)을 만들고 위치나 색채로 입체감 있게 사물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성이가 오리고 붙이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술처럼 느껴진다. 어떤 작품을 보고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고 느낌을 공유 할 수 있다면 그 작품은 충분히 사회와 소통하는 언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말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언어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이번 미술 활동을 통하여 언어가 아닌 방법으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성이가 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에 대하여 DBA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다.



정민우, 티셔츠, L, 티셔츠에 패브릭마카, 2020



정민우, 티셔츠, L, 티셔츠에 패브릭마카, 2020



정민우, 티셔츠, L, 티셔츠에 패브릭마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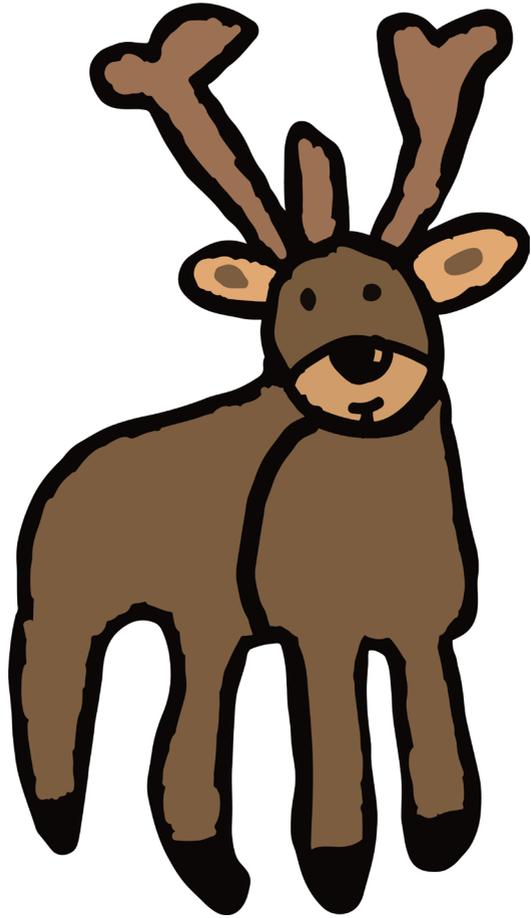
정민우, 티셔츠, L, 티셔츠에 패브릭마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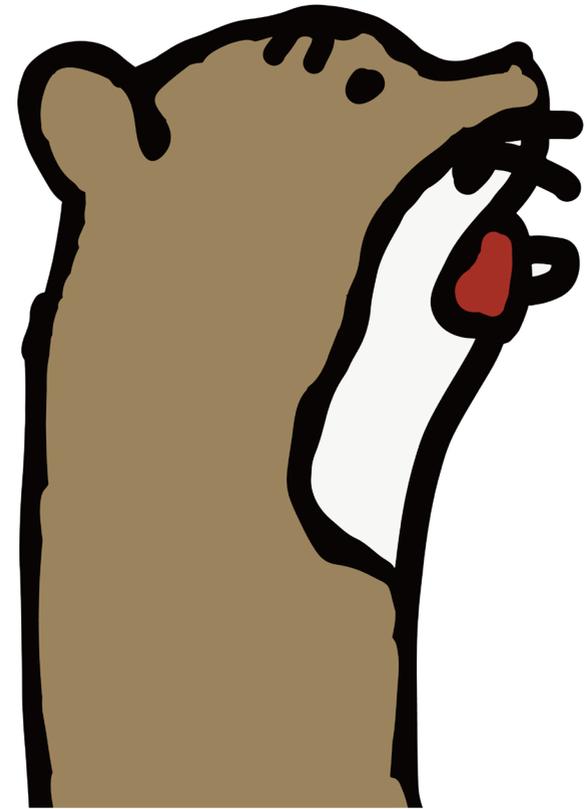
정민우, 티셔츠, L, 티셔츠에 패브릭마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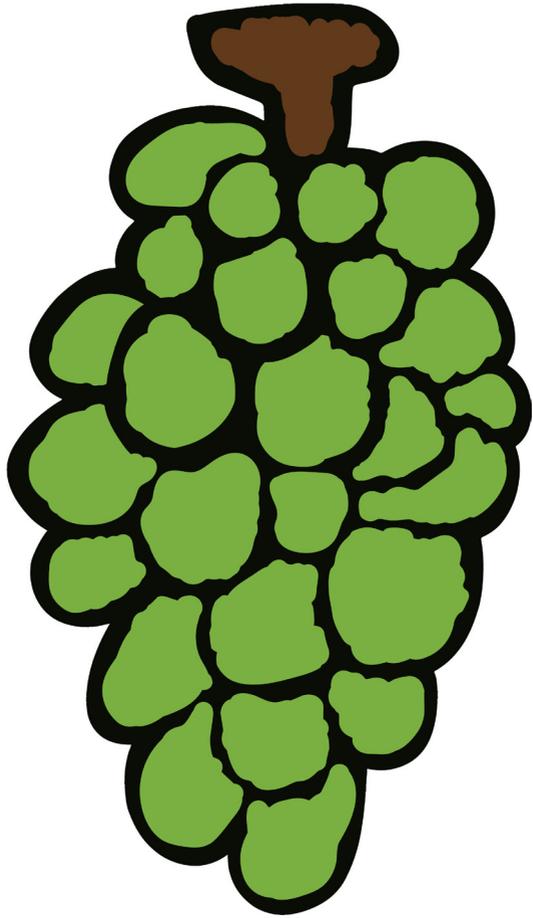
정민우, 티셔츠, L, 티셔츠에 패브릭마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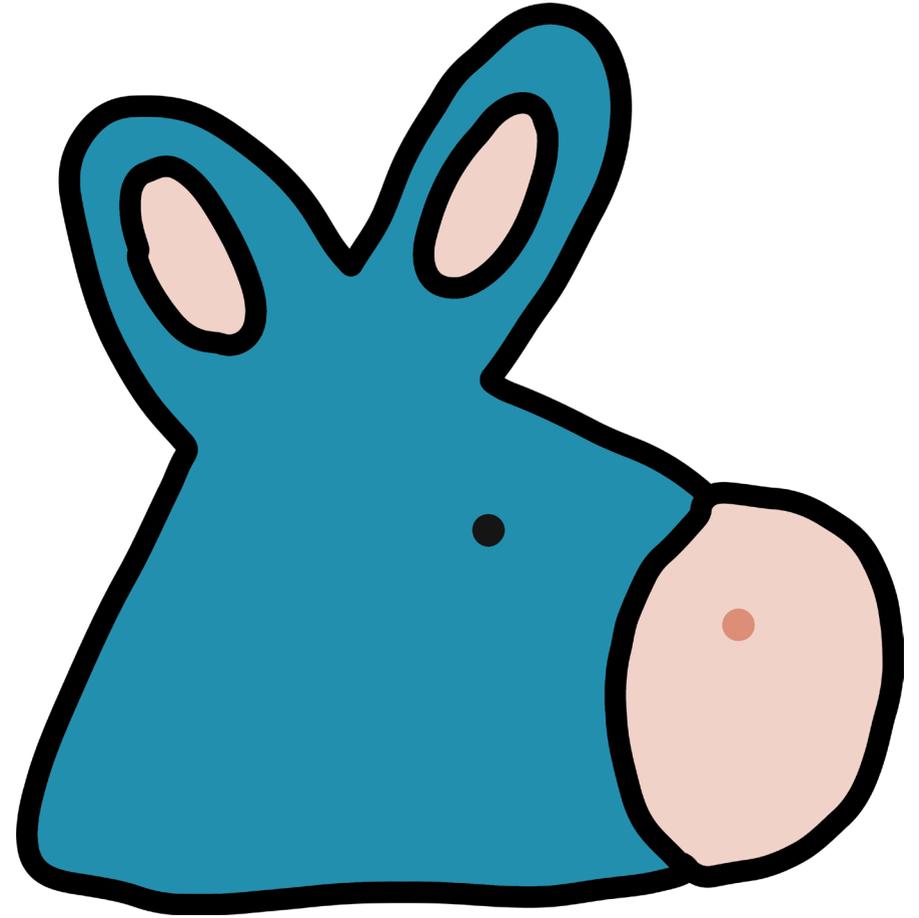
정민우, 사슴, 60.6X72.7cm, 디지털드로잉,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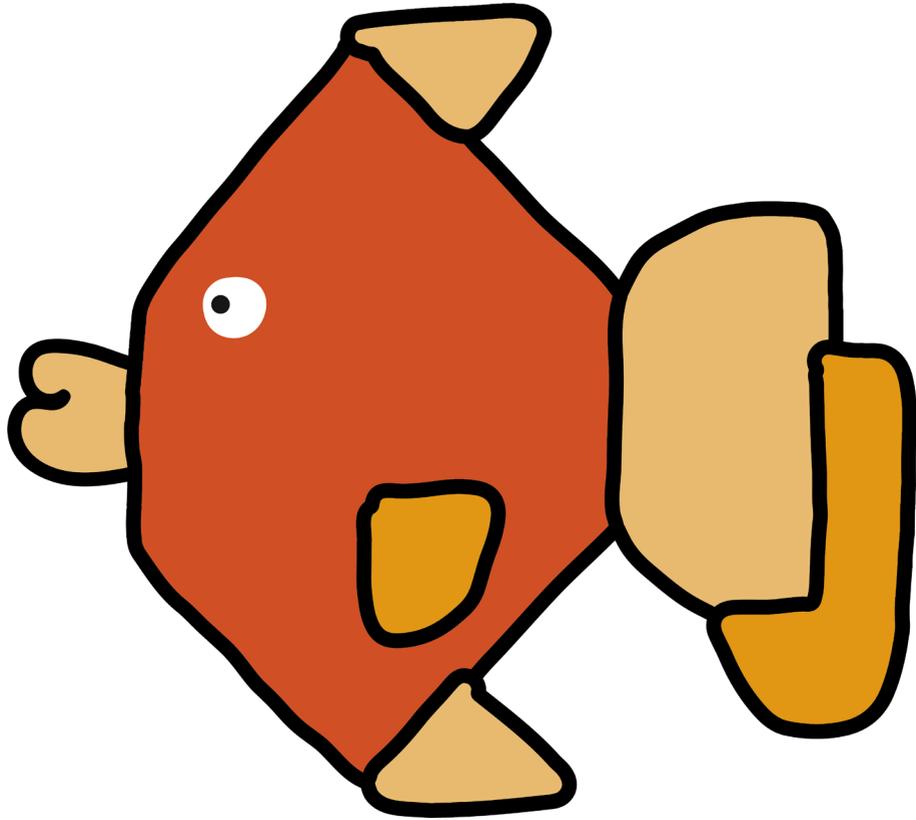
정민우, 수달, 60.6X72.7cm, 디지털드로잉,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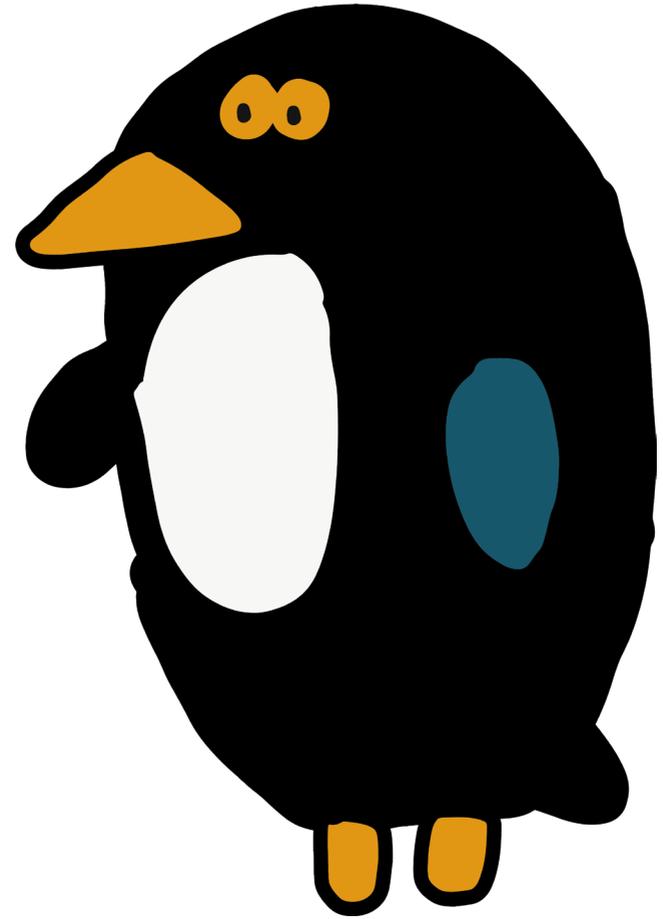
정민우, 청포도, 60.6X72.7cm, 디지털드로잉,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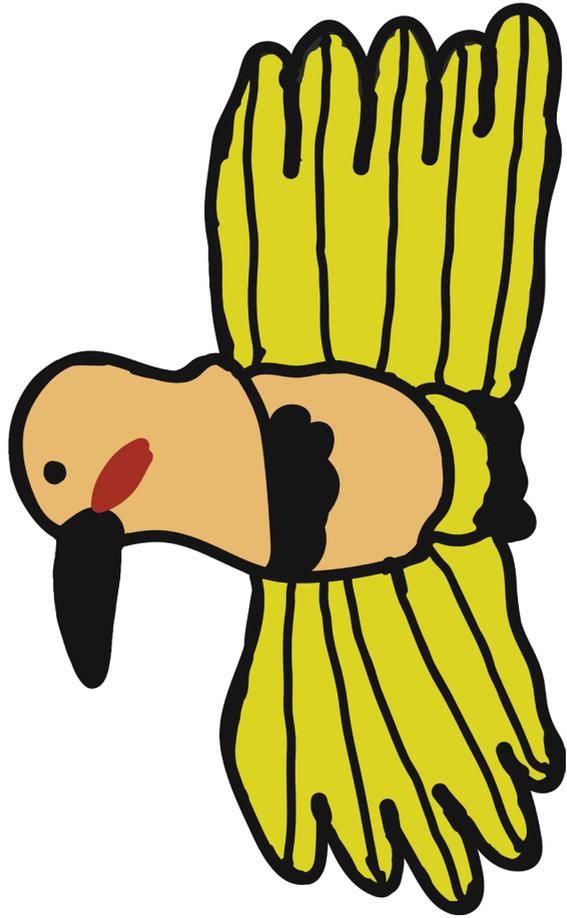
정민우, 당나귀, 60.6X72.7cm, 디지털드로잉,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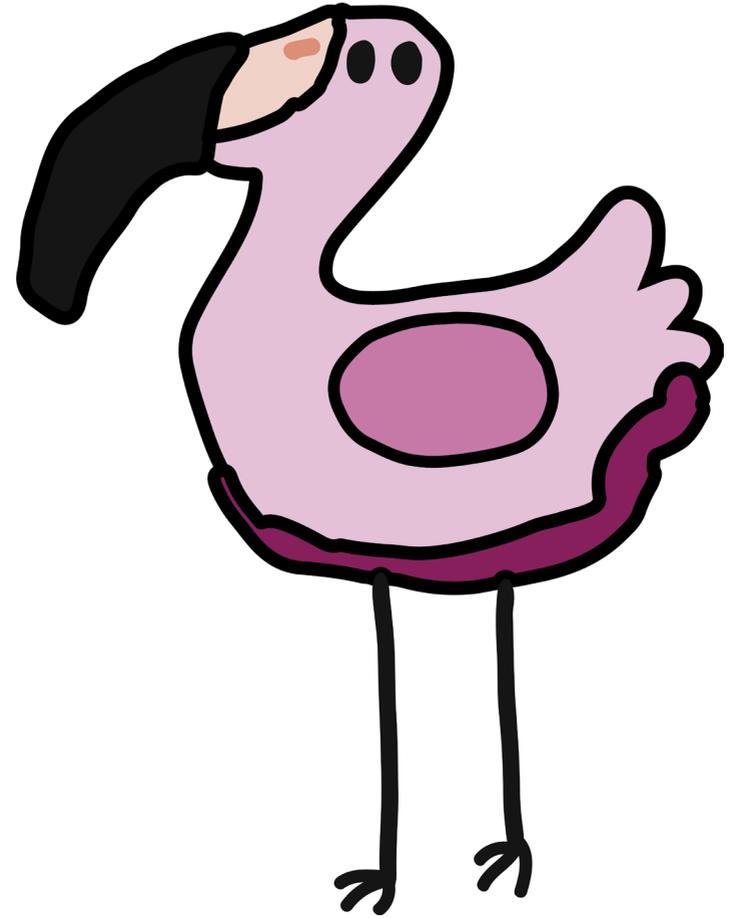
정민우, 금붕어, 60.6X72.7cm, 디지털드로잉, 2020



정민우, 펭귄, 60.6X72.7cm, 디지털드로잉, 2020



정민우, 새, 60.6X72.7cm, 디지털드로잉, 2020



정민우, 홍학, 60.6X72.7cm, 디지털드로잉, 2020



최병철, 무제 , 35x35cm, 종이판넬에 색연필, 2020



최병철, 무제 , 35x35cm, 종이판넬에 색연필, 2020



최병철, 꽃병 I, 35x35cm, color pencil on paper panel, 2019



최병철, 꽃병 II, 35x35cm, color pencil on paper panel, 2019



최병철, 꽃병Ⅲ, 35x35cm, color pencil on paper panel, 2019



최병철, 꽃병Ⅳ, 35x35cm, color pencil on paper panel, 2019



최병철, 아기 선인장과 꽃병, 35x35cm, color pencil on paper panel, 2019

✿ 최병철 작가 노트

렝 빈 도화지 한복판에
구불구불 꽃병 하나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빈 꽃병에
꽃 한 송이 피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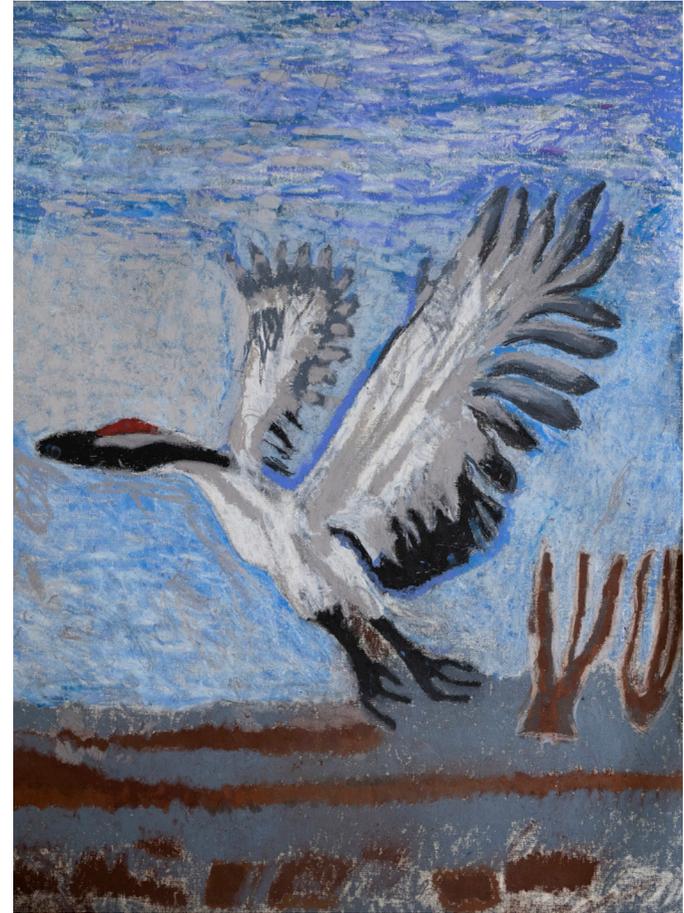
최병철의 마음속에서 싹튼 꽃 한 송이.
세상 한구석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물고기는 새와 이야기를 하고
하늘엔 유리종이 떠다닙니다.

최병철의 그림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
세상에 조금씩 아름다움이 늘어납니다.



홍영훈, 올빼미 "아름다운 달빛 꿈" 60.6X72.7c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20



홍영훈, 두루미 "희망" 65X95c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20



홍영훈, 호랑이 "용기" 53X53c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20



홍영훈, 레서판다 "Happiness" 53X53c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20



홍영훈, 고래상어 "고요한 바다" 120X60c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20



홍영훈, 양 "초원에서" 53X53c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홍영훈, 원숭이 "사랑" 53X53c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19



홍영훈, 오리“발장구” 45.5X53cm, 캔버스에 오일파스텔, 2020

* 홍영훈 작가노트

어린 시절부터 여러 동물을 가까이서 보며 관찰하기를 즐겼던 영훈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동물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작품을 통해 때로는 고래상어가 되어 깊은 바닷속에서 고요한 사색에 빠져들고 거북이가 되어 따사로운 해를 받는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독수리가 되어 하늘도 날아다닙니다.

영훈이가 바라보는 따듯한 시선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드림블라썸아카데미 **Dream Blossom Academy**

주관·주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협력 서울특별시중구청·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도탈미술관

Dream Blossom Academy 작가

박지윤·송우석·송지수·유채린·장지환

정문성·정민우·정효경·최병철·홍영훈

협력작가

노세환·손민지·김태협·박혜민

김시하·최병석·이동재·최지이

영상 최윤석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진옥

사업단 안영환·김솔림·이소연

도탈미술관

관장 노준의

책임 큐레이터 신보슬

드림블라썸아카데미 2020 종합전시

Dream Blossom

기간 2020년 8월 12일(수) ~ 8월 17일(월)

장소 갤러리 인사아트 본전시장

이 책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ream Blossom Academy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